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EUROPE

유럽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05~10/11

1. 유럽 항만·물류 인프라 확장 및 효율화

2. 유럽 화물 물동량 회복세와 물류 기업 성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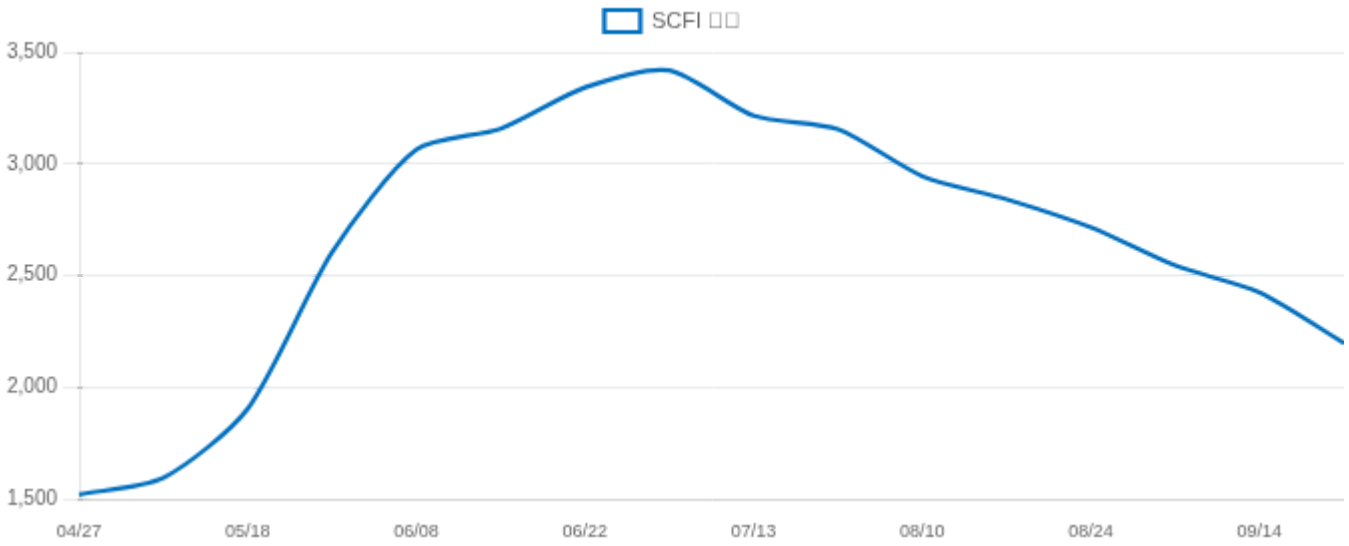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유럽 권역의 핵심 흐름은 항만·물류 인프라의 확장과 효율화, 그리고 화물 물동량의 회복세가 맞물리며 물류 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주요 항만과 철도 물류 거점들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국 철도 화물은 개혁 수혜에서 제외되어 국가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화는 유럽 물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며, 월간 등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물동량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음. 다만 영국 철도 화물 부문의 제도 개혁 지연은 유럽 내 물류 효율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 향후 국가별 물류 경쟁력 차별화가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유럽	2,199 $/TEU	09/28	—	-13.6%
KCCI 북유럽	3,555 $/FEU	10/05	-5.2%	-17.1%
KCCI 지중해	3,806 $/FEU	10/05	-5.2%	-21.0%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9/28

유럽 항만·물류 인프라 확장 및 효율화

> **유럽 주요 항만·철도 물류 거점이 인프라 확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영국 철도 화물 부문은 제도 개혁의 직접 수혜에서 제외됨.**

폴란드 그단스크 발틱허브 터미널이 전동 레일 장착 갠트리 크레인 2기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연간 철도 처리 능력을 120만 TEU로 확대함. 총 6기의 철도 하역 장비가 7개 선로(총 연장 5.25km)에서 운영되며, 광학문자인식(OCR)과 충돌방지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됨. 이는 발트해 지역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로서 복합운송 연결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영국 정부는 9월 28일 철도차량 조달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여객 열차의 공공 소유·리스 등을 개별 평가하기로 함. 기존의 민간 소유·리스 방식(로스코)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철도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목표임. 그러나 화물 운영은 그레이트브리티시레일웨이(GBR) 관할 밖에 있어 직접적 혜택은 제한적이며, 간접적 수혜 가능성만 제기됨.

발틱허브의 철도 능력 확장은 유럽 내륙 연결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운송 전환(모달 시프트)을 촉진하는 요인임. 특히 750미터 길이의 선로 7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는 대형 화물열차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항만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반면 영국의 철도차량 조달 개혁은 여객 중심으로 설계되어 화물 부문의 차량 현대화와 용량 확대에는 당분간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유럽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는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과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 발틱허브의 사례는 중·동부 유럽 항만이 서유럽 주요 항만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보여줌. 영국의 철도 개혁은 여객 부문의 공공 주도 효율화를 추구하지만, 화물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은 향후 영국 물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폴란드 발틱허브 터미널, 전동 레일 장착 갠트리 크레인 2기 추가로 연간 철도 처리 능력 120만 TEU 달성.
- 총 6기의 하역 장비가 750미터 길이 선로 7개(총 5.25km)에서 운영되며 OCR·충돌방지시스템 적용.
- 영국 정부, 9월 28일 철도차량 조달 전략 발표하고 공공 소유·리스 등 대안 개별 평가 방침.
- 영국 화물 철도는 GBR 관할 밖으로 직접 수혜 제외, 간접적 공급망 안정 효과만 기대됨.

전망

발틱허브는 확장된 철도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중·동부 유럽 화물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합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의 철도차량 조달 개혁은 여객 부문에 우선 집중될 것이며, 화물 부문은 차량 현대화와 용량 확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유럽 전반적으로 항만-철도 연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은 물류 효율성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발틱허브의 철도 처리 능력 확대로 중·동부 유럽 경유 복합운송 선택 시 리드타임 단축과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영국발 화물은 철도 차량 조달 지연으로 서비스 개선이 더딜 수 있음.

포워더 — 그단스크 항만의 철도 연결성 강화로 내륙 운송 구간의 대안 경로를 확보하고, 탄소 배출 저감 요구에 대응한 친환경 운송 상품 개발 기회가 생김.

항만·선사 — 발틱허브의 자동화·대용량 철도 설비는 선박 대형화와 환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사례로, 항만 운영사는 유사한 복합운송 인프라 투자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RailFreight, Baltic Hub expands rail capacity to 1.2 million TEU per year · RailFreight, UK freight could benefit from rolling stock reform (검색일: 2026-10-11)

유럽 화물 물동량 회복세와 물류 기업 성장

> **유럽 화물 물동량은 월간 등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기준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류 기업들은 신규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화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음.**

프랑크푸르트공항의 5월 화물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17만2265톤을 기록했으나, 4월 실적 대비로는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누적 기준으로는 1~5월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82만2243톤으로 집계되어 연초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함.

물동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4월 루프트한자 노조 파업에 따른 여객기 하부 화물칸 공급 축소 및 유럽발 아시아행 노선 수요 둔화, 제조업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운항 편수 감소폭(2.1%)이 화물 감소폭(1.2%)보다 커 항공편당 탑재 효율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물류 기업들은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DHL은 폴란드 진출 35주년을 맞아 2024년 포즈난 인근 로바코보에 1억8000만 유로를 투자한 국제물류센터를 개소했으며, 시간당 4만5000개의 소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이는 폴란드가 유럽의 주요 운송 회랑에 위치하여 오프쇼어링·니어쇼어링의 중심지로 부상한 데 따른 전략적 투자로 평가됨.

해당 투자는 유럽 화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 아시아발 유럽행 화물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동유럽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면서 폴란드 등이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음. DHL은 카토비체 공항에 신규 화물 시설 건설을 계획하는 등 수출입 화물 처리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데이터·디지털화를 통해 문서 처리와 선적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공항 5월 화물 물동량 17만226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4월 대비 증가
- 1~5월 누적 처리량 82만224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 5월 운항 편수는 2.1% 감소해 항공편당 화물 탑재 효율 개선 추정
- DHL 폴란드 국제물류센터, 시간당 4만5000개의 소화물 처리 가능, 최대 일 100만개 처리
- DHL 카토비체 공항 신규 화물 시설 계획, 폴란드의 유럽 물류 허브 역할 강화

전망

유럽 화물 물동량은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와 제조업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겠으나, 누적 기준 회복세와 항공편당 효율 개선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보합 또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유럽 역내 화물 흐름을 재편하고, 향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시사점

화주 — 항공 화물 운임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유럽 물류 거점 활용 시 비용 절감 및 리드타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포워더 —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허브의 탑재 효율 개선 추세를 활용한 스페이스 확보 전략이 필요하며, 폴란드발 대체 노선 개발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임.

항만·선사 — 유럽 역내 제조업 기반이 동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항만·내륙 운송 네트워크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참고자료: Asia Cargo News, 프랑크푸르트 화물 5월 1.2% 감소…누적 물동량은 회복세 · Air Cargo Week, DHL marks 35 years of operations in Poland (검색일: 2026-10-11)